

삼성, 특별성과급 격차 이목집중… 사업부별 최대 4억 전망

산정 방식·지급 기준 안내 예정
실적 확정 후 실제 지급액 결정
내년 임단협 '보상체계 재편' 쟁점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의 성과급 격차가 사업부별로 최대 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상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추석 이후 특별경영성과급 기준 공개와 함께 노조가 격차 해소에 나서면서 보상체계 재편이 내년 임금·단체협약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추석 연휴 이후 특별경영성과급의 산정 방식과 지급 기준을 조합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실제 지급액은 올해 실적이 확정된 뒤 결정된다. 다만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성과급이 달라지는 만큼 메모리와 시스템LSI·파운드리 간 보상 격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경영성과급은 지난 5월 임금협상에서 처음 도입됐다. DS부문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마련해 40%는 공통으



지난 5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뉴시스

로 배분하고, 나머지 60%는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이에 따라 메모리와 시스템LSI·파운드리 실적 차이가 성과급에도 반영된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300조원으로 가정할 경우 연봉 1억원인 메모리 직원의 성과급은 기존 성과인센티브(OPI)를 포함해 약 6억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시스템LSI·파운드리

는 약 2억1000만원에 그쳐 사업부별 격차가 4억원 가까이 벌어질 수 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올해 실적이 확정된 뒤 결정된다.

내년부터는 적자 사업부에 대한 별도 기준도 적용된다. 노사 합의에 따라 적자 사업부에는 DS 공통 지급률의 60%만 반영한다. 올해는 적용을 유예했지만 2027년

분부터 시행한다. 시스템LSI와 파운드리가 적자를 이어갈 경우 메모리와 실적도 엇갈리고 있다. 삼성전자 DS부문은 올해 2분기 매출 127조5000억원, 영업이익 89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메모리는 D램과 낸드 판매 호조에 힘입어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파운드리도 HBM 베이 스파이와 미국 고객사 수요 증가로 실적이 개선됐다. 다만 삼성전자는 사업부별 영업이익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다.

이처럼 실적 차이가 보상 격차로 이어지면서 시스템LSI·파운드리 인력 이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초기업노조가 DS부문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향후 2년 내 이직 의향은 파운드리가 81.5%, 시스템LSI가 75.4%로 나타났다. 메모리는 32.7%로 DS 전체 평균인 49.5%를 밑돌았다. 특히 성과급 격차가 확대될 경우 사업부 간 인력 이동이나 외부 이탈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같은 우려에 노조는 사업부별 보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다음 달 6일 총회를 열고 성과급 분배의 전사 기준 통합안과 시스템LSI·파운드리 적자 페널티 개선안을 표결한다. 가결된 안건은 2027년 교섭 요구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사업부별 실적을 성과급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가 내년 교섭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근 초기업노조가 DS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한 점도 변수다. 지난 16~19일 총회에서는 조합원 가입 자격을 DS부문으로 제한하는 규약개정안이 96.3%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조직 재편 이후 첫 교섭인 만큼 DS 내부의 보상 문제에 교섭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지난 9일 타 노조에 보낸 '성과급 분배 등 교섭안 건 조율 관련 안내' 공문에서 "적자 페널티로 시스템LSI 및 파운드리 조합원의 업무 열정이 사그라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교섭 요구안 설계 전 핵심 안건으로 확정짓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李 대통령, 美·멕시코 순방 마무리

핵심 등 대미 투자협상 '물꼬'… 멕시코 17건 MOU 성과

한미 정상회담 성사… 협력의지 확인
멕시코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 타결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유엔(UN)총회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5박7일간의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26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글로벌 기어 방안, 한반도 평화공존 방안 등을 설명하고 노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다. 멕시코에선 양국의 경제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지난 2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출발한 이 대통령은 2박3일간 뉴욕에 머물며 세계 최대 다자외교 무대인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 2년 연속 참석해 호르무즈 해협 및 홍해 봉쇄로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발생한 것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인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다. 인공지능(AI),



멕시코 국빈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6일(현지 시간) 멕시코 페리페 앙헬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기후 변화 등 인류 공동의 도전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 우리나라가 기여하겠다고 밝혔고, 유엔의 개혁에도 찬성의 뜻을 밝혔다.

또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한 설명을 통해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의 단계적 평화구상인 'E·N·D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한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을 제시했다.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와 북한의 추가적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동향을 맞추는 구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기조연설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은 예정에 없었다. 순방 직전까지 대미(對美) 투자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한미 정상 간 만남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협상이 진전되며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30분간 만난 이 대통령은 전작권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한미 조전 협력, 핵추진잠수함 연료와 우라늄 농축·재처리 등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이

를 위한 후속 협의도 이뤄지기로 했다. 특히 핵잠과 원자력협정 등은 협의가 진전되지 않았는데, 대미 투자협상 타결로 물꼬가 트인 셈이다.

미국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23일 북미 시장 관문이자 중남미 최대 시장인 멕시코를 국빈 방문해 세일외교에 공을 들였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16년 만의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24일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이어 양해각서(MOU) 체결식, 오찬, 공동 언론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멕시코 양국은 7년을 끌어온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 타결과 17건의 MOU 및 협력 문건 체결을 이뤄냈다.

이 대통령은 25일 멕시코시티 월드트레이드 센터에서 열리는 한-멕시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후 K엑스포 행사장에 방문했다. /서예진 기자 syj@



metro

>> 1면 '환율 하락세… 수출'서 계속

원화가치 등 변수 산적 재계 "시장 면밀히 분석"

다만 원화강세가 장기화할지는 여전히 변수다. 미국 물가와 금리, 글로벌 재정 불안 등 대외 변수에 따라 달러 가치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기업들은 특정 환율을 전제로 내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기보다 환율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복수의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관계자는 "단기간에 달러당 수백원의 변동폭이 발생하면서 기업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적용한 환율 가정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환율, 유가, 금리에 주가 변동성이 커진 만큼 일단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1면 '85주 째 오른 서울'서 계속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 8%

고강도 대출 규제로 올해 들어서는 서울 외곽 지역의 상승세가 가파른 '평탄화'가 이뤄지면서 서초구의 상승률은 15.9%로 관악구와 같으며, 강남구는 13.9% 올라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강남구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이달 셋째 주까지 7주 연속 하락했으며, 낙폭 역시 확대되는 분위기다.

공급부족과 함께 실거주 중심 정책으로 불안한 임대차 시장에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부동산R114 등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전년 대비 26.9% 감소한 2만7158가구 수준이다. 실제 가을 이사철인 9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1만4174가구에 그쳤다.

전세 상승률은 집값 상승률을 거의 따라잡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누적 상승률은 9월 셋째주 기준 8%로 지난해 같은 기간(1.75%)를 크게 웃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산업부, '韓-멕시코 경제·산업·자원 협력 이니셔티브' 체결

공동이익 연구… 무역협정 개시 준비

한국과 멕시코 정부가 상호 진출기업 보호를 위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 아닌 만큼 한국산에는 수출 장벽이 존재한다. 우리 정부는 경제협력 확대 및 규제완화를 위한 절차를 착실히 밟아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상대국에 국내기업의 현지 애로 해소를 요청했다.

산업통상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멕시코 경제 및 산업·자원 협력 이니셔티브(기본틀)'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양국은 공동이

익연구를 통해 향후 무역협정 개시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니셔티브 문서에는 24일(현지시간) 열린 정상회담 직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경제부 장관이 서명했다.

양측은 이 이니셔티브가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기회라는데 공감하고 상호 이익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행을 위해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광물·자원 협력방안, 진출기업 이익 보호를 위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을 논의해 나가고 무역·투자 촉진을 위한 기관(한

국 Kotra·멕시코 UIEG) 간 협력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25일 에브라르드 장관과 가진 별도 양자면담에서, 양국 간 무역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 애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당부했다.

그는 최근 멕시코의 FTA 미체결국 대상 관세인상에 따라 한국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된 점을 언급했다. 특히 기업들의 피해뿐 아니라 멕시코에 대한 추가 진출·투자 유인이 감소했다고 지적하고, 이에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제도적 틀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상대 측에 전달했다.

멕시코 측에 해소를 요청한 대목은 ▲통관 지연 및 항만 적체 ▲전력 인프라 부족 ▲멕시코-브라질 자동차 협정(ACE55)상 애로 등이다.

김 장관은 또 멕시코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란메히코'(전략산업 육성)을 거론한 뒤, 한국이 바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파트너·책임자임을 내세웠다. 이어 양자 무역협정이 맺어진다면 경제협력이 미래산업·공급망 협력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공동이익연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무역협정의 잠재적 이익과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다.

/서예진 기자 syj@



metro